

## 진짜배기혁명가들로

201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나시여 고무격려하시였다.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며 사상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한 그들이 보고싶으시여 수천리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리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폭풍같은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답사행군대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하면서 눈을 깔고 누워자면서도 해방된 조국을 그려본 투사들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슴후덥게 새겨안았다는 지휘관들의 이야기도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당에서 인민군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을 위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발기한것은 새세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고 필승의 신념이 짝 들어찬 진짜배기혁명가들로 억세계 준비시키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우리의 총비서동지께서 어찌하여 나라의 정세가 그토록 엄혹한 시기 자기들에게 백두산지구로 가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는 순간이었던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는 길이 있다.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절로 터져나왔다.